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10월 4일(주일) 제1068호

보세요. 온누리 30년의 눈부신 비상(飛翔)



이어령

남들이 앉아 있을 때 홀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남들이 떠날 때 홀로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외톨이라 부르고
바보라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저기 계십니다.
남들이 다 가난을 저주 할 때 가난한 삶을 찬미하고
남들이 애통하는 것을 피할 때 그 쓴잔을 마신
저 분이 바로 저기에 서 계십니다.

가시밭길인 줄 알면서 오늘도 따라갔더니
무거운 짐 인줄 알면서도 지고 갔더니
길 끝에 거짓말처럼 환한 백합과 장미 밭.
그 분 때문에 바보처럼 살면서 행복합니다.

뽕밭이 바다가 되어 산천이 바뀌어도
보세요. 30년 살아온 지붕에 비가 새지 않는 까닭은
문이 열리고 닫히는 돌쩌귀에 녹이 슬지 않는 까닭은
저 분의 바보 같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풀조차 자라지 않는 돌땅을 사라 하시기에
남들이 버린 땅을 구해 열심히 밭을 일구었습니다.
보세요. 그 곳에 저리도 많은 보석이 파묻혀 있는 것을
30년이 지나서야 겨우 알았습니다.

어리석음이 지혜가 되고 약함이 강한 것이 되고
천한 것이 존귀한 것이 되는 바보들의 찬란한 행진
지금 온누리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는 순간
보세요. 저 분을 따라 일제히 날아오르는 눈부신 비상(飛翔)

|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맞이하며 |

“선한 영향력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파중 장로
(당회서기)

온누리교회가 벌써 창립 30주년이 되었습니다. 30은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립(而立, 공자가 30 세에 자립하였다는 데서 나온 말)으로 성인이 되어 자립한다는 뜻이 있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인 올해는 지나온 3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계획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온누리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리더십과 성도들이 함께 해 왔습니다. 복음과 진리 외에는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창조적인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겸손과 존중으로 섬겨왔습니다.

그 근간은 일대일과 큐티입니다. 일대일 양육과 큐티를 통해 성도님들이 양육되었고, 이것이 성령

님 안에서 한 뜻으로 뭉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비전을 잘 수행해 왔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난 30년을 잘 해왔듯, 앞으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새로운 2기 온누리교회를 향해 도약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 사회, 더 나아가 세계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2년 전에 사회선교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통일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또 다음 30년을 이끌어갈 차세대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만 잘 하는 교회로 남아서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일대일 양육을 통해 성도 간 교제를 강화해야 하며,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온누리교회는 리더십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도전하고 때로는 모험도 해야 합니다. 편안함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창의성과 역동성으로 무장해, 타교회와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창립 30주년 축제 이렇게 진행된다

4일 창립기념주일, 6~8일 부흥비전집회
9일 30주년 Celebration · 울어라 한반도여

드디어 오늘(4일)부터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가 시작된다.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뜻 깊은 축제가 9일까지 이어진다. 4일 창립기념주일 행사, 6~8일 부흥비전집회, 9일 30주년 Celebration과 울어라 한반도여 집회가 막 오른다.

오늘은 온누리교회 창립기념주일이다. 오늘 주일예배에서는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는 특집 영상이 상영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국수나 떡이 제공된다.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는 날만큼 교회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CGNTV는 ‘온누리’와 함께 만든 10년의 감동, 온누리’와 함께 만들 10년의

비전’을 주제로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연다. 2000선교본부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전만 광장에 부스를 설치, 성도들과 ‘온누리 선교 이야기’를 나눈다.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도 설치된다.

6일부터 8일까지는 부흥비전집회가 열린다. 서빙고 본당에서 저녁 7시30분에 진행된다. 위험한 교회(화), 낮아진 교회(수), 연약한 교회(목)를 주제로 이재훈 목사가 설교한다. 부흥비전집회 예배실황은 모든 캠퍼스에 중계된다.

9일에는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의 메인행사가 열린다. 저녁 6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창립 30주년 Celebration과 ‘울어라 한반도여’ 집

회가 열린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이 집회에서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울어라 한반도여 집회는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로 동시통역되고, 각 공동체별로 준비된 버스로 이동할 예정이다(표 참고).

이재훈 담임목사는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새로운 도전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나아가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모든 성도들에게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창립 30주년 Celebration · 울어라 한반도여 공지사항

■ 오시는 방법

단체버스

- 공동체별 탑승 장소와 시간에 따른다(표 참조).
- 공동체 소속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교회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준비된다.
- (서빙고 오후3시 30분 출발, 양재 오후3시 출발/선착순 마감)

대중교통 및 셔틀버스

- 경의선열차 문산역 하차 후 셔틀버스 이용
- 셔틀버스 = 문산역<->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
- 집회 전 오후4시30분~6시/집회 후 오후7시50분~9시

시외버스의 경우 서울역 YTN빌딩 앞 탑승, 문산역 하차 후 셔틀버스 이용

자가차량

- 자가차량의 경우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주차료 개별부담)

준비사항

- 추운 날씨에 대비해 점퍼와 담요를 준비하도록 한다.
- 개인방식을 지급하나 돗자리를 이용하면 더욱 좋다.
- 단체버스 문의: 010-2195-5715

오늘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약정서, 드림통(저금통), 홈페이지, 모바일웹으로 동참

오늘(4일)은 CGNTV 정기후원의 날이다.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실시된다.

CGNTV는 2013년부터 온누리교회 창립기념주일에 정기후원행사를 열고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CGNTV 정기후원약정 행사에는 오늘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 된다. 신규후원이나 증액후원을

선택할 수 있다. CGNTV 홈페이지와 모바일웹에서도 정기후원 행사에 동참할 수 있다. 드림통(저금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오늘 CGNTV 임직원들이 총출동한다. 국내 10개 캠퍼스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한다. 기존 드림통을 수거하고, 새 드림통을 나눠준다.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실시된다. 오늘자(10월4일) 온누리신문 16면 하단에 있는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CGNTV에 바라는 점’을 적어서 안내데스크에 제출하면 선물을 준다(선착순).

한편 올해 개국 10주년을 맞이한 CGNTV는 현재 170여 개국에 24시간 동안 복음방송을 하고 있다. 해외에 7개 지부가 있고, 12개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후원문의: 02-796-2243

/ 정현주 기자

오늘은 대중교통 타고 교회 오는 날

사회선교부,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 실시

사회선교부가 오늘(4일)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을 벌인다. 오늘은 승용차는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타고 교회에 오는 날이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장애인 동반

차량만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양재 온누리교회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차량만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셔틀버스는 동일하게 운영된다.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은 교회가 낮

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 사회선교부가 실시하고 있는 Loving U 캠페인 중 하나다.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주일에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지역 사회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02-3215-3434

〈공동체별 버스탑승 안내 표〉

서빙고	출발장소	시간
가정사역	서빙고역 1번출구 앞 / 양재역 앞	15:00
강서	신방화역 / 가양역	15:00
강촌	신용산초등학교 앞	15:00
고양은평	은평이마트정문앞(15:00) / 덕양구청앞 (15:20)	
관악금천	신림동봉림교 / 서빙고역 1번출구	13:30
광명	철산독서관 앞	14:00
김포	풍무동 홈플러스 3층주차장입구 운양동 롯데캐슬 정문 인근(김포제일고 입구)	15:30
노원	남양주시 별내동 KCC 아파트 앞 하계역 1번 출구 앞	14:00
동대문중랑	청량리 전철역 시계탑 앞 / 망우역 앞	14:00
동작	장승배기역 / 5번출구 공터	14:30
마포	공덕역 롯데캐슬 옆(공덕교회 앞 건너편)	15:20
북누리	의정부 경기도 제2청사 건너편 비전센터 앞	15:00
서대문	명지전문대 정문	15:00
서빙고	서빙고역 1번 출구 앞	15:00
성동광진	지하철 3호선 옥수역 / 건대 이마트 앞	15:00
성북	길음역 / 쌍문역	13:50
신용산	서빙고역 1번출구 앞	14:40
양천	양천구민회관 앞	15:00
여의도	미원빌딩과 농협 건물 사이도로	15:00
영등포구로	신도림역1번출구 / 큰길건너 뚝방길	15:00
영여예배	서빙고 온누리교회	15:00
용산	서빙고역 1번출구 앞(서빙고로쪽)	15:00
이수	이수역 구산빌딩 앞	15:00
이촌	신용산초등학교 앞	15:00
일본어 예배	서빙고역 1번출구 앞	15:00
일산	고양운동장 옆 대화역공원주차장	15:00
중종로	서빙고역 1번출구 앞	15:00
특별한 초대	서빙고 온누리교회	15:00
한강	서빙고 신동아 앞	15:00
한터	가양역 2번출구 청산학원 앞	14:30
OCC	서빙고역 1번출구 앞	15:30
S 브릿지	삼각지역 앞	14:30

양재	출발장소	시간
강남A	경기도 건너편 하나은행 옆	14:00
강남B	대치역 파리바게트 앞(하이마트건너편)	14:30
강남C	도곡 교육관(숙명여고정문)	14:00
강남D	숙명여고정문 / 개원중학교 대문산입구역 2번출구	14:00
서초A	내방역 8번출구	15:00
서초B	세브일레븐 양재온누리점 입구	14:30
서초C	잠원동 경원중학교 앞	14:00
서초D	양재(세브일레븐) / 내방역	13:30
양재	교육개발원사거리	14:00
송파	송파 가든파인 앞 / 잠실학생체육관 건너편	14:00
분당A	아탑역 1번 출구	14:00
분당B	분당 오리역 6번	14:00
과천의왕	과천 중앙고 정문 / 평촌 농수산물 시장 정문	14:30
산본안산	군포시청(14:00) / 상록수역 경유(14:30)	
안양평촌	평촌자유공원	15:00
브릿지33+	양재 세브일레븐앞(배상면주가 옆)	14:00
특초 Point5	일동제약 사거리 대로변 세브일레븐	15:00

성가대 및 대학청년부, 무 공동체

본부차량	장 소	시간
서빙고 연합성가대	서빙고 온누리교회	14:00
양재 주일빌 무찬주거팀 찬양팀	강남대로변 세브일레븐앞(양재)	13:30
양재 주경배 찬양팀	도곡교육관 (숙명여고)	14:00
장로합창단	서빙고 온누리교회	14:30
세라핌	서빙고 온누리교회	14:30
챔버팀	서빙고 온누리교회	14:00
주차팀	서빙고역 1번출구(서빙고로쪽)	13:00
플래시몹팀	서빙고역 1번출구	13:00
여호수아 찬양팀	양재 온누리교회 세브일레븐 앞	14:20
서빙고 대학청년	서빙고역앞	15:00
양재 대학청년	양재 온누리교회 세브일레븐 앞	14:40
서빙고 무 공동체	서빙고 온누리교회(초소 앞)	15:30
양재 무 공동체	양재 온누리교회	15:00

〈공동체 자리배치도 그림〉



확대당회

일시: 10월 10일 오전 6시 서빙고 두란노홀
대상: 전임교역자, 시무, 명예, 사역, 협동장로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바람처럼 불처럼

사도행전 2:1~13

“바람처럼, 불처럼, 진동으로, 기쁨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s’라고 표기합니다. 직역하면 행동들, 행위들입니다. 흔히 사도들의 행적이라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행적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해보자고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행한 일의 결과로 생겨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행적으로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기록된 모든 행적들은 사람들의 행적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적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자들은 대개 신을 궁극적 존재나 절대적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궁극적 존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고,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섬길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행적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행적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나 하나님의 행전이라고 바꾸어 읽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지 열흘 후는 유대사회의 중요한 명절인 오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날이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십일이 될지 이십일이 될지 몰랐습니다. 오순절과 성령이 오심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뤄질지 모르고 기다리는 것이 훈련입니다.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때를 우리가 정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기다리고, 때로는 약속을 기

다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참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고, 교제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의 두 가지 의미

오순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로부터 오십 일째 되는 날입니다.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절적인 의미입니다. 오순절이 되면 보리추수를 시작합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모두 같은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출애굽한지 오십 일째 되는 시기에 일어난 사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기와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일을 기념합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이 전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의식들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고, 복음이 전해짐으로 추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리가 익어서 추수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던 그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신비의 율법이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에 이 예언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이 예언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은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율법을 ‘알아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읽고 스스로 판단하고, 깨달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마치 율법이 내 안에 내장된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새 마음이 이식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행하는 것만 가지고는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셔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천하지 못했던

일을 실천하게 됩니다.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마음이 새겨지는 역사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아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양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양이 죽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절기입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1절).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 오순절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순절이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사건은 제자들이 소리 높여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기도를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미 오순절에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약속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약속된 성령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어떤 노력, 능력, 자질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기다렸던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마 새벽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2~4절).

성령님이 오심과 함께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은 히브리어로 영과 같은 단어입니다. 바람으로 쓰기도하고 영으로도 씁니다. 이 단어는 영적인 생명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은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임재하셨습니다. 태풍이 집을 날려버리고, 나무뿌리까지 뽑아버린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임했습니다. 성령님은 종종 소리를 사용하십니다. 소리로 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때로는 침묵 가운데 임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예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6일간은 너희가 침묵하며 돌기만 하여라”고 명령했습니다. 불신의 소리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에는 “너희가 합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벽이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소리가 커서 예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리였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 하실 때에는 강한 믿음의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홀로 소리 내서 기도해보십시오. 그 소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주어지는 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리는 소리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강기류처럼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죄를 태우고, 정결케하는 성령의 불

두 번째 현상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불의 혀 같은 모습이었습니 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타는 횃불을 보았고,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고, 광야에서 백성들은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내려왔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불이 임했지만 태우지는 않았습니 다. 일반적인 불은 물질을 태우지만 성령의 불은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태우고, 정결케 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단지 몸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가운데 있던 죄가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태워집니다.

(13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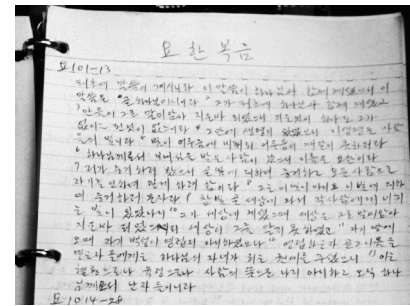
12가정



가건물 당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경공부노트

기획_ 온누리행전 30년

사도행전적 바로 그

2015년 10월 4일은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이다. 온누리행전을 쓰기 시작한지 꼭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을 꾸며 교회의 터를 다지고, 성경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긍휼을 베푸는 교회,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라는 다섯 가지 뼈대를 세웠다. 2011년 8월 2일 하용조 목사 소천 이후 2기 온누리교회가 출범하면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지붕)가 되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자 한다. 온누리행전 30년을 요약했다. / 편집자 주

성경·복음 중심의 교회

온누리교회는 12가정으로 시작했다. 12가정이 모인 소그룹 성경공부모임이 온누리교회의 태동이다. 12가정은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고 내용을 요약했다. 정해진 주제에 따라 리포트를 썼다. 일주일에 책 3권을 읽고 독후감도 썼다. 이 성경공부 모임은 3개월 동안 진행됐다. 2기, 3기 성경공부 모임이 만들어졌고 성경공부 모임 1기들이 공부를 도왔다. 12가정은 교회를 세우기 전까지 1년 동안 훈련받고 기도로 준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1985년 10월 6일 창립예배를 드리는 날까지 성경공부는 계속되었다.

창립예배를 드린 후 새신자들이 매주 2배씩 늘어났다. 1985년 10월 27일부터 가건물로 옮겨 예배를 드렸다. 1987년 7월 19일 지금의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임당예배를 드렸다. 온누리교회는 초창기부터 성경공부와 큐티에 중점을 뒀다. 하용조 목사는 온누리교회의 기본적인 양육 체계에 큐티를 반드시 포함시켰다.

큐티는 순예배, 일대일 제자양육 등 온누리교회 모든 양육의 중심이었다.

1999년 7월 25일에는 양재 햇빛회관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새신자반, 유초등부, 대학 청년부, 기도회, 큐티 세미나 등 각종 모임이 이어졌다. 2002년 3월부터는 온누리지역 축제 등의 큰 행사들이 양재에서 개최되었다. 같은 해 12월 15일에는 부천 온누리교회가 문을 열었다.

2003년 3월 주일예배에서 하용조 목사는 'Acts 29' 비전을 선포했다. 온누리교회의 창립 정신인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로 돌아가 28장까지밖에 없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겠다는 당찬 비전이었다.

일대일도 빼놓을 수 없는 온누리교회의 핵심 양육체계다. 큐티와 일대일은 온누리교회 양육의 뼈대다. 일대일 하면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하면 일대일이 떠오를 정도다. 1986년 9월 28일부터 시작한 주일성경공부에 큐티와 일대일이 포함됐다. 일대일은 새신자 양육 필수 과정이었다.

온누리교회는 전도집회의 새지평을 열었다. 창립 3주년인 1988년 10월 23-25일 가을 전도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전도집회를 개최했다. 1989년 가을 전도대회에서는 300여 명이 결신했다. 1991년에는 12월에는 '성탄특별전도집회'를 개최했다. 절기에 맞춰 열린 첫 전도집회였다. 1997년부터는 전도집회에 새바람이 불었다. 같은해 1월부터 시작된 '구도자를 위한 열린예배'의 영향으로 전도대상자들을 연구하고 전도집회 대상을 세분화하기 시작했다. 그 첫 열매가 2001년 막 오른 맞춤전도집회다. 40대 남성을 위한 전도집회 '비상구'를 시작으로 연령별, 성별, 영적 필요에 따라 눈높이를 맞춘 전도집회가 시작되었다. 한국 기독교계는 온누리교회의 맞춤전도집회를 획기적인 전도방식이라고 평가했다. 2013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65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는 결신율이 평균 82%나 된다.

선교 중심의 교회

온누리교회는 떠나는 교회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한 하용조 목사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떠날 것을 강조했다.

창립예배를 드린 지 2개월 만인 1985년 12월 김의정 선교사를 인도네시아로 파송했다. 1986년 1월 5일에는 변재장 선교사를 일본으로

로, 9월 21일에는 정민영 선교사를 파푸아뉴기니로, 김창환 선교사를 영국으로 파송했다. 해외선교뿐 아니라 국내선교에서도 힘을 모았다. 지금은 매향지가 된 사회공단에 있던 형도교회를 온누리교회가 창립하기도 전인 1985년 7월부터 섬겼다.

온누리교회에게 1994년은 기념비적인 해다. 하나님이 온누리교회에 '2천/1만 비전'을 주신 해이기 때문이다. 당시 성도수가 6~7천 명이던 온누리교회가 이 비전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보였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이 비전에 순종했다. 누구나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다. 1996년 4월 선교부활주일에 하용조 목사가 '부활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2천/1만 비전'으로 초대하자 무려 918명의 성도가 선교사와 사역자로 헌신했다. 지금까지 온누리교회는 72개국에 1,785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들 뒤에는 2만 7천여 명의 보내는 선교사들이 있다.

온누리교회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 사역도 시작했다. 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미국과 아프간을 위해 기도하던 한 성도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 이남식 집사가 아프간 난민을 위해 써달라며 윤지준 파키스탄 대사에게 2천만 원을 전달한 것이 신평탄이 되었다. 이후 영어예배, 성인예배에서 500만원이 모아졌다. 그 귀한 헌금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농촌마을개발, 의료사역, 문화사역, 컴퓨터 교육, 학교 사역 등을 진행했다.

이라크 선교에도 앞장섰다. 김사무엘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이라크 전쟁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이라크로 갈 것을 명령하셨다며 하용조 목사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김사무엘 선교사는 이라크로 아웃리치를 다녀와 이라크의 기독교 현황과 신학교

건립, 외국교회들의 교회설립 시도를 보고했다. 김사무엘 선교사는 요르단 암만에서 아랍계 목사들을 모아 교회성장 세미나를 인도했다. 2003년 10월 10일 이라크한인연합교회에서 꿈에 그리던 첫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이라크 선교를 담당하던 김사무엘 선교사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혈액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일본 선교는 온누리교회 초창기부터 시작했다. 1986년 1월 5일 변재장 선교사를 파견한 것이 시작이었다. 1989년에는 일본 어린이들을 초청해 토요학교를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부모들도 교회에 관심을 가졌고 그해 10월 일본어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2천/1만 비전이 선포된 1994년에는 온누리교회 첫 장로 선교사인 조성록 선교사가 일본으로 파송됐다. 조성록 선교사는 그해 6월 12일 아침 온누리교회의 전신인 오와타신덴 그리스도교회 창립예배를 드렸다.

긍휼을 베푸는 교회

온누리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도 발 벗고 나섰다. 예수향기회가 시초다. 예수향기회는 7년여 동안 2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용산 효창공원에서 40여 만 명의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공동체였다. 사건사고 현장에도 예수향기회가 있었다. 1995년 6월 30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에도 자원봉사자로 헌신했다. 예수향기회가 모태가 되어 1999년 8월 온누리복지재단이 탄생했다. 변동코이노니아,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양지 온누리요양센터, 청파노인복지센터를 개원하며 청소년 및 장애인, 노인들을 섬기



삼풍백화점 참사 현장



요양원 봉사



재난구호 현장



온누리 워십



Acts29 헌신예배



부모초청 전도집회



선교현장



해외아웃리치

교회의 꿈이 이루어진다

12가정으로 시작해 2기 온누리교회 서막이 오르기까지
5가지 목회철학 기초로 '3맞 5똥' 실천적 목회철학 제시

고 있다. 2010년에는 지구촌 이웃들을 섬기는 NGO 더 멋진세상(The Better World)이 출범했다. 아동보호사업, 긴급구호, 지역개발, 의료 및 교육지원, 인도적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2014년 1월 20일에는 사회선교본부가 신설됐다. 소외된 약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긍휼사역을 행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사회선교본부는 참여와 실천, 의존보다 자립, 갈등과 분쟁 중재와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책임, 사회봉사, 사회통합, 방문지원, 나눔 사역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온누리교회 표어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가 선포되자 사회선교본부는 더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역이 'Loving U' 캠페인이다. U는 Uncomfortable(불편함을 낮아짐의 시작으로 보고 감수하는 것), Unfamiliar(익숙함을 포기하고 낯선 이들에게 다가가 관계를 맺는 것), Unsafe(하나님이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4월 12일과 10월 4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 오는 '행복한 불편함'을 실시했다. 성도들은 물론 지역사회 반응이 호평일색이다. 교회의 자체적인 노력에 칭찬이 자자했다. 이외에도 '2015 러빙유 청년벤처대회', '청년 부채문제 해결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1987년 7월 19일 서빙고 본당 입당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깜짝 놀랐다. 교회 안에 서점, 커피숍, 소극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파격적인 행보였다. 하용조 목사는 복음이라는 뼈대 위에 문화라는 옷을 입혔다. 당

시 다른 교회에서는 기타와 드럼을 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것이 후에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 사역으로 발전했다. 1996년을 기점으로 온누리교회가 성도 1만 명 시대를 열면서 찬양을 사모하는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찬양팀이 생겨났다. 당시 교계에 평신도 찬양팀의 탄생은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문서선교라는 지평도 열었다. 두란노서원이 선봉에 섰다. 하용조 목사는 기독교 잡지를 만들기 위해 직접 정부 관계자를 만나 설득해 허가를 받아냈다. 그렇게 탄생한 잡지가 바로 '빛과소금'이다. 1985년 4월 <생명의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인 큐티책은 1987년 8월 26일 <생명의 삶>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까지 매월 발간하고 있다. 그동안 두란노는 3,000여 종의 단행본을 출판했으며, 7종의 잡지를 발간하고 있다. 집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었다. 그 집회는 일본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그 집회는 바로 '러브소나타'다. 일본인을 위한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는 일본에 한류열풍을 일으킨 '겨울연가(일본명: 겨울소나타)'를 모티브로 일본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오사카 러브소나타는 일본의 황금연휴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세미나에 2,300여명, 문화전도집회에 4,80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 목회자들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은 기적적인 일이라며 감탄했다. 동경 러브소나타는 러브소나타의 정점을 찍었다. 2만 여명의 참가자들이 동경 사이타마 슈퍼아레나를 가득 매웠다. 러브소나타가 열리는 곳마다 그동안 연합하지 못했던 일본 교회들이 연합했고, 행사장은 집회참가자들로 가득 찼다. 2007년 시작된 일본 러브소나타는 2015년 9

월 현재 총 22회 열렸다. 1,853개 교회가 협력했고, 59,923명의 일본인 참석했다. 2,757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한국인 참가자도 13,405명이나 됐다.

하용조 목사와 이재훈 목사

2011년 8월 2일, 하용조 목사가 소천했다. 향년 65세. 영적 지도자를 잃은 6만 여 성도들은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그를 애도했다. 각계각층에서 하용조 목사의 소천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8월 4일 서빙고 본당에서 천국환송예배를 드렸다. 하용조 목사가 생전 가장 좋아하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가 흘러나왔다. 성도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하용조 목사는 7번의 간암 수술을 받고, 1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마지막까지 헌신했다. 그는 참된 목자, 참된 헌신자, 참된 설교자였다.

2011년 8월 9일부터 담임목사 청빙과정이 시작되었다. 80일 동안 진행됐다. 담임목사 청빙과정은 성도들이 교회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가진 기도모임과 장로들의 헌신으로 경쟁의 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순례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온누리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한국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2011년 10월 27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이재훈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서 이재훈 목사는 "귀한 직분을 맡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서지만 생명을 다해 헌신하신 하용조 담임목사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

'3맞 5똥'이란?

2기 온누리교회 사역을 시작한 이재훈 목사는 2014년 온누리 정책 포럼 행사에서 5가지 목회철학을 기초로 한 걸음 더 전진한 모습의 '3맞 5똥'의 실천적 목회철학을 제시했다.

3개의 맞은 온누리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전통 3가지다. 첫째는 '선교의 영성'이다. 온누리교회 선교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으로 성도들의 마음 속에 선교의 영성이 흐르고 있다. 둘째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영성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겸손과 존중'이다. 각자의 소리와 각 공동체와 캠퍼스들이 각자의 목소리와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다.

5개의 똥은 우리가 도전하고 모험해야 될 가치다. 첫째는 개별적 선교사 중심의 사역이 더 많은데 이제는 확실한 선교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다. 둘째는 교회가 비전을 통해서 개척을 한 캠퍼스가 목회자 개인에게 의존되는 것이 아닌 시스템 중심과 프로그램 중심, 성도 중심의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교회, 교단을 넘어서는 한국 교단과 차세대 선교단 차세대 사역은 교육이라는 단어를 선교로 바꿔야 한다. 넷째는 사회선교를 넘어서 통일을 주도하는 교회다. 훗날 역사에서 한반도의 통일에 온누리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일터에서 세상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러브소나타



하용조 기념관



하용조 목사 묘



이재훈 담임목사 위임예배



2015 제3회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

한중사랑교회 200명의 성가대가 찬양하고 있다.

디아스포라의 민족성 깨우고, 선교사로 재파송

2,300명 참석 ... 선교적 가치와 역할 재조명

2015 제3회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가 막 내렸다. 지난 27~29일 햇불선교센터(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고려인, 유럽권, 영미권, 중앙아시아권, 오세아니아권 등지에서 온 한인 디아스포라 2,300명이 참석했다. 추석날 모이니 더 뜻 깊었다. 풍성한 한가위답게 열매도 풍성했다. 한인 디아스포라 442명이 동북아시아 지역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고, 고려인 200여 명도 중앙아시아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민족성을 깨워주고,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축제 한마당이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기차는 떠나간다 보슬비를 헤치고~”

1935년 만주 이민사를 다룬 박영호의 노래 ‘정한의 밤차’의 한 소절이다.

정한의 밤차는 당시 사회상을 반영해주는 아주 슬픈 노래다. 우리 아버지와 형을 싣고 간 한(恨)많은 기차를 원망하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이별을 표현한 부르짖음이기 때문이다. 매일 같이 기차길에 서서 기차를 향해 욕을 퍼붓고, 돌을 집어던지는 시골 농민과 아이들의 행동은 1935년 사회에 대한 반항을 의미한다. 기차는 한국의 근대화를 상징한다. 기껏해야 기차를 보고 눈을 즐기거나 허공에 주먹질을 해대는 행위가 전부였지만 실형민(失鄉民)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뼈아픈 기억이다.

강제징용 가는 사람들을 싣은 기차를 향해 남은 가족들이 통곡했다. 양복 입은 면서기와 주재소의 순사들이 시골 처녀들은 서울로 팔고, 젊은 청년들을 러시아, 연해주, 북만주, 일본 도쿄, 오사카로 팔았다. 그때 팔려간 사람들이 한인 디아스포라 1세대다.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1902년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자, 1905년 불법이민 조

직책에 속아 멕시코로 떠난 에네켄 이민자, 일제강점기 강제로 연행된 조선인 노동자, 1937년 시베리아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 사막에 버려진 고려인, 1963년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1만 8천명 등이다. 전 세계 175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중에서 조선족들이 민족 정체성을 가장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었다. 조선족 중에 30%가 중국에서 출생했고, 나머지는 조선에서 이주했다. 태평양 전쟁 기간(1940~1945년)에 한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하면서 조선족 인구가 줄기도 했지만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1953년 112만 명이던 조선족이 2012년에는 183만 명으로 늘었다. 1980년 중국의 산업화로 조선족들이 대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1998년 한국정부가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면서 조선족들의 한국행이 늘어났다. 2004년부터는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면서 현재 국내 거주 한인 디아스포라 중에서 절대다수는 조선족이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70만 명 정도다. 그 외 6만 명의 고려인들과 3만 명이 영미권에 속한다. 2015 제3회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 참석자 중에서도 60%가 중국동포였다. 그들은 중국과 북한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령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남미 이민자들.

이번 선교대회에 참석한 중국동포 장철호 형제(55세, 한중사랑교회)는 중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사업을 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제자를 양육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 세계선교에 관심을 갖고 이번 대회에 참석했다”면서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디아스포라 선교의 당위성과 유익

한인 디아스포라는 인구대비 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디아스포라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다. 175개국에 흩어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중국에 257만 명, 미국에 209만 명, 일본에 89만 명, 유럽에 61만 명, 아시아 기타지역에 48만 명, 캐나다에 20만 명, 중남미에 11만 명, 중동에 2만 명, 아프리카에 1만 명

이 살고 있다.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성장하게 된 요인은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뿐만이 아니다. 영적인 이유도 적용된다. 모든 디아스포라들은 타국에 살면서 소외감을 느낀다. 같은 동족과 있고 싶고, 모국어로 말하고 싶고, 고유한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디아스포라들은 교회를 좋아한다. 그들의 욕구를 알고, 채워주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민자 2세인 하형록 목사(Tim Haahs 회장, 갈보리비전교회 담임)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는 한류시대의 요청이고, 사명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완성되도록 역량 있는 사역자들을 지속적으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탈북 디아스포라는 복음통일의 주역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통일 한국시대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2만 6천명에 이르는 탈북민들이 살고 있다. 많은 정보들이 북한사회에 유입되면서 한류문화가 형성되고, 기독교도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감정은 체제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탈북민들을 주축으로 복음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바로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남남갈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 교회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보수적 교회는 탈북민들을 앞세워 투쟁의 목소리를 내고, 진보적 교회는 대가없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로 대중을 흥분시키는 경향이 있다. 한국 교회가 갈등하면서 북한 동포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 그들을 수용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탈북민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복음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탈북민 선교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

“CGNTV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시간과 재능, 기도와 물질을 드려 섬기는 사람들

100% 후원으로 운영되는 CGNTV는 오직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재능, 물질을 드려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후원자의, 후원자에 의한, 후원자들의 비전과 꿈을 위한 방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연자가 후원자가 되고, 운영위원회와 직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방송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CGNTV를 위한 여성연합 중보 기도모임 ‘드림온 맘’은 지지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제공하고 있다.

/ 편집자주

가수 노사연과 탤런트 유호정은 CGNTV 열혈 시청자다. CGNTV 사랑이 얼마나 각별한지 모른다. 가수 노사연은 “보면 볼수록 힘을 공급받고,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CGNTV의 특별함”이라고 강조했다. 탤런트 유호정은 “CGNTV는 기도해주는 친구 같다”고 했다. 그녀는 CGNTV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CGNTV를 향한 그녀들의 특별한 사랑이 간증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CGNTV의 특별함



가수 노사연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다. 기쁨이 소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많이 지치고 힘들 때 CGNTV를 보면 충전이 된다.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졌기 때문이다. 보면 볼수록 충전되고, 받은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CGNTV의 특별함이다.

CGNTV를 보면 생명이 되살아나는 마음이 든다. 영혼의 샘물 같다. 또한 CGNTV는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CGNTV를 통해 공급 받은 진리를 세상에 나아가 선포하고, 받은 사랑을 남에게 나눠줘야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들기 때문이다.

CGNTV는 정말 순수하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원액 같다. 앞으로도 CGNTV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힘을 주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열방의 선교사들이 CGNTV를 보고 힘을 얻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정말 좋겠다. CGNTV가 사명을 잃지 않도록 내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도울 것이다.

CGNTV는 기도해주는 친구



탤런트 유호정

CGNTV 직원들이 선교사님을 위해 안테나를 설치하는 장면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선교지에서 외롭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생겼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모국어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정말 큰 위로가 되겠다. 내가 CGNTV를 후원을 하는 것이 선교사님들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시작했는데 내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도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 집에서 CGNTV를 틀어놓으면 남편과 아이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것도 행복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언제든 귀한 간증을 들을 수 있고, 말씀도 공급받을 수 있다.

촬영이 있는 날이면 교회에 오기 힘들 때가 있는데 CGNTV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어 참 다행이다. 쉽게 만나지 못하는 유망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병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나는 CGNTV 존재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요,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늘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CGNTV를 사랑한다. CGNTV는 기도해주는 친구 같다. CGNTV를 통해 들은 말씀 한 구절의 힘으로 한 주, 한 달, 일 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이다. CGNTV를 통해 내가 누린 기쁨과 은혜는 혼자서만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CGNTV는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하다. 더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다. CGNTV가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탤면 좋겠다.



2014 CGNTV 운영위원회 오비히로 아웃리치. 안테나 설치 후 기뻐하고 있다.

CGNTV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CGNTV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크고 작은 CGNTV 사역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 현재 129명의 운영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시간과 물질을 드려 CGNTV의 발전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 구축을 위해 애쓰고 있다. 분기별 모임을 갖고 CGNTV를 도울 방안을 찾고, 매년 1회 이상 아웃리치를 가서 선교지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있다. 방송사역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만방에 알리고 있다.

CGNTV의 해외 지사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4년 9월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 2015년 8월 홍콩 CGN World 설립 감사 예배 때에도 참석해 격려했다.

CGNTV 운영위원장 정상건 장로는 “CGNTV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방송”이라며 “CGNTV가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후원자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GNTV를 위한 중보기도모임

CGNTV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후원자가 있다. 바로 중보기도팀이다. 2006년 류석인 권사가 환상을 보고 금요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했다. 2013년에 고영희 권사를 주축으로 월요중보기도팀이 생긴 후 양재, 수원, 남양주 캠퍼스로 확대돼 현재 5개 팀이 CGNTV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CGNTV 중보기도 모임은 매주 또는 격주로 모여 두 시간 가량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CGNTV를 위한 모든 중보기도팀들이 모여 여성연합모임 ‘드림온 맘’을 결성했다. 앞으로는 직원들과 함께 기도하

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양재 중보기도팀 문명옥 권사는 “나의 작은 기도가 힘이 된다는 게 참 감사하다”고 했고, 수원 중보기도팀 조필기 권사는 “우리의 기도와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CGNTV를 통해 땅 끝의 한 영혼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달라도 뭔가 다른 직원들

CGNTV 직원들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 그들은 땅 끝을 섬기는 방송선교사다. 세상적인 가치를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CGNTV에서 근무하고 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지만 방송선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직원들 대부분이 정기후원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53명의 직원 중에 113명이 정기후원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들의 이름으로 후원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다.

음향팀 최영섭 팀장은 아내와 두 딸과 함께 CGNTV를 후원하고 있다. 자녀들이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시작했다. 최 팀장의 아내는 방송 모니터를 얼마나 꼼꼼히 해주는지 모른다. 커뮤니케이션팀 현아영 팀장은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로 가족 후원을 하고 있다. 자녀의 이름으로도 후원하고 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양질의 교육이나 값비싼 장난감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크로스미디어팀 홍수진 사원은 부모님이 먼저 CGNTV 후원을 희망하셨다. 그녀의 부모는 내한선교사 13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블랙마운틴-잊혀진 시간을 찾아서’를 사역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시청하고 지인들에게도 추천했다.

특집 대담 - CGNTV, 시대의 지성 이어령 교수를 만나다

“전 세계가 네트워킹 하는 ‘C’

CGNTV가 이 시대의 지성 이어령 교수를 만났다.

CGNTV의 향후 10년에 관한 제언을 들었다. 그의 신앙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CGNTV 대표 유재건 장로와 이어령 교수가 마주 앉았다. 동시대를 산 그들은 CGNTV의 지난 10년 동안의 사역과 미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하용조 목사



이어령 교수는 ‘리브소나타 도쿄’ (2007년) 집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지성이 영성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장면은 CGNTV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됐다. 당시 이 장면은 세간의 엄청난 이목을 끌었다. 이어령 교수와 CGNTV의 인연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교수는 세례를 받고 가장 먼저 CGNTV와 인터뷰를 했다.故 하용조 목사는 지성과 영성을 두루 갖춘 그가 CGNTV 사역에 동참해주기를 원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은 지 8년이 지났고, CGNTV도 개국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 동안의 이야기 속에는 놀라움, 눈물, 그리움, 사그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꿈이 가득했다.

CGNTV, 영성의 전파였기에 가능했다

유재건 장로: CGNTV가 어느새 개국 10년이 됐습니다. 직원도 157명으로 늘어났고요. 현재 179개국에서 24시간 동안 CGNTV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해외 지사의 활동도 활발합니다. 특히 중남미 선교교육사역에 CGNTV 미주 지사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CGNTV의 활약을 보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CGNTV를 본 사람들의 반응도 엄청납니다. 동포들이 복음방송인데도 일반 한국 방송보다 많이 본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 CGNTV처럼 멀리 가는 방송이 없죠. 한 교회에서 시작된 방송사가 지구촌 곳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가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 받고 처음 인터뷰를 한 방송이 바로 CGNTV였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저에게 CGNTV 사역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셨었지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적인 접근과 영적인 접근은 분명 다르니까요. 언론계에 오래 몸담고 있었고, 대학교수도 했고, 강연도 많이 했지만 CGNTV 사역은 미션(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은 못합니다.

2007년 리브소나타 도쿄 집회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자마자 2만여 명의 일

본인 관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랍니다.”

일본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본인들을 미워했다고 고백하셨죠.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성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깨달았지요. 제가 방송출연이나 강연을 많이 하는데 지성이 전달될 수 있는 인원은 많아봐야 100여 명입니다. 하지만 하용조 목사님의 영성은 도쿄도를 가득 채운 2만여 명의 군중을 일순간 사로잡았습니다. CGNTV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CGNTV는 광야에 울리는 영성의 방송입니다. 온 세계를 향하고 있으니까요. 일개 교회가 만든 사실 방송이 전 세계 곳곳에까지 퍼진 것은 영성의 울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계를 울릴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지적인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영성 전파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 장로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국회에 게실 때보다 소리가 더 멀리 가죠?

유재건 장로: 더 멀리 가고, 마음에 평화와 보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학교수, 국회의원,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8개 사무실에서 일했지요. CGNTV 대표이사 사무실은 제가 그동안 일한 사무실 중에서 가장 좁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장 편안해요. 말년에 하나님이 제게 큰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령 교수: 제 딸이 유 장로님과 친분이 있다고 했을 때 법조인이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 장로님이 CGNTV에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제 딸이 왜 유 장로님을 존경한다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개인을 변호하시고, 정계에서 집단을 대변하시고, 이제는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네요. 미션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CGNTV가 변성할 줄 알았습니다. 개국 10주년이라서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 그리고 크리스천의 길

유재건 장로: 교수님이 세례를 받은 일이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어령 교수: 제가 세례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하와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린 맹세 때문이었죠. 제 딸의 눈만 멀지 않



유재건 장로

“감사한 10년, 전 세계를 아우르는 또 다른 1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는다면 모든 걸 예수님께 바치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망막이 벗겨진 흔적도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겁이 났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싶었거든요.

세례를 받은 것은 그 기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기복적인 성향이 있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애 통하는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자리를 뜨셨지요. 복음의 그런 면모들이 늘 신기했고,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유독 읊이 떠올랐습니

다. 나는 약한 사람이라 불행할 참지 못합니다. 시험에 자신이 없어요.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을 것 다 얻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러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우리 딸 절대 바보 아니다”

세례 받은 이후의 삶이 오히려 옹골차게 됐어요. 더 불행하게 되었죠. 딸을 잃고, 외손자를 보내고, 하용조 목사님까지 떠나보냈으니까요. 인생 병원 한번 가지 않았던 제가 큰 수술을 두 번이나 했어요. 하나님이 아직 제 몸과 마음에 있는 의심과 허영을 치시는 것 같아서 겁이 났습니다. 크리스천의 길이 무척 외롭다고 느껴지기도 했죠.

다운받고, CSNS' 되기를”

(Christian+SNS)

와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목사를 회고했다. 이어령 교수는 여전했다. 무엇보다 영의 세계에 대해 겸손하고, 진솔했다. 시대의 석학이며 문필가다운 감수성과 통찰력도 보여주었다. 그들의 대담을 정리했다.

/ 편집자주



이어령 교수

“앞으로 10년 부지런히 성장하고 발전하시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유재건 장로: 최근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따님인 이민아 목사가 생각나 눈물이 났습니다. (교수님)딸 바보셨잖아요. <땅 끝의 아이들>을 품고 가는 딸을 보고 어퍼셨나요?

이어령 교수: 부모로서 속상하죠. 바보 같다고 느껴졌으니까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충분히 더 좋은 대학을 갈만했지만 조기졸업이 가능한 학교를 택했죠. 미국에서도 좋은 조건으로 변호사로 스카우트 됐는데 싫다며 1년 연봉이 변호사 초봉만도 못한 검사로 직장을 옮겼어요. 암 투병 중에도 전화를 걸면 늘 집에 없었어요. 아프리카나 중남미로 봉사하러 다녔지요. 부모로서 누가 그 모습을 보고 잘한다고 하겠

어요. 그 아이 때문에 불평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수차례 말해왔죠. 하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딸의 선택이 옳았어요. 그래서 ‘내가 옳다’, ‘내가 맞다’ 하는 마음을 담은 책이 바로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입니다. 책 말미에 ‘우리 딸 절대 바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입니다.

한 번은 그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는 같다고 했어요. 연락도 없이 한국에 와서 “아버지, 나 인천공항인데 데리러 와주세요” 하면 내가 나오지 않느냐면서요. 아버지는 조건이 없고, 자신은 그런 아버지를 믿는다고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똑같은 거라고 했죠. 한 집나간 소녀가 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바로 사랑

한다고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바로 “나도!”하고 답변이 왔대요. 아버지가 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딸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 아이는 시험 치는 것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은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시험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탁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더군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시험 못 치면 아빠가 나 사랑해주지 않을까봐 열심히 했던 거지”라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가슴에 남아요.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중 제가 쓴 시에 ‘내가 큰 집을 지어주었지만 넌 그걸 버렸다. 네가 원하는 집은 땀물에 신발 하나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집...’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책은 그 아이가 아기집에서 하나님 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딸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미션을 들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CGNTV가 이야기야 할 길

유재건 장로: CGNTV가 벌써 개국 10주년이 됐습니다. 179개국에서 24시간 동안 방송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태국, 아부다비, 인도네시아, 홍콩에 지사가 있습니다. 현지 기독교인들과 협력해 현지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참 꿈같은 10년이 흘렀는데요. CGNTV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효과 있게 나아가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령 교수: 미디어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접근해서 접속하고, 서로 네트워킹하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날로그적으로 하셨지요. 세속적으로는 SNS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과 성경에 가장 접속하기 편한 재미있고, 좋은 미디어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로 변화하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다 운반고, 서로 네트워킹하는 ‘CSNS’가 되기를 바랍니다. SNS에 Christian의 C를 붙인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생활로 이어지도록 이끄는 미디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온전히 살아있는 교회가 아쉬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신앙은 온전히 믿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믿거나 해야지,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은 크리스천을 욕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CGNTV는 앞으로 10년 부지런히 성장하고 발전하시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10년 후에 저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누구와 대담을 하건 오늘 제가 잡담처럼 말한 게 현실이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10년 뒤 땀을 열매를 벌써 보는 것 같아 흐뭇합니다.

유재건 장로: 오늘 축복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10년 뒤에도 만나 뵈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웃음). CGNTV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CGNTV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CGNTV 전 직원들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CGNTV 10년 발자취>

2005년 3월 CGNTV 개국
2005년 8월 미주CGNTV 개국
2006년 9월 미주CGNTV 스페인어방송 시작
2006년 10월 일본CGNTV 개국
2007년 9월 정기후원 런칭
2007년 10월 IS-10 위성방송 송출 실시
2008년 6월 중문CGNTV 개국
2008년 8월 C&M케이블방송 채널 런칭
2008년 10월 IPTV 서비스 시작
2009년 11월 태국 케이블(HTV) 방송 시작
2010년 3월 제작스튜디오 HD 전환
2010년 11월 태국 제작센터 오픈
2011년 5월 개국 6주년 기념 콘서트
2011년 11월 일본지사 47개년 교회 네트워크 구축
2012년 3월 아부다비 제작센터 오픈
2012년 6월 CJ헬로비전 케이블 채널 런칭
2012년 11월 다류 ‘스마일 라크로즈’ 환태평양영 화제 베스트미션 필름상 수상
2012년 12월 유재건 대표이사 취임
2013년 3월 개국 8주년 기념 선교한신예배
2014년 7월 재기 방송선교사 파견
2014년 9월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
2015년 9월 태국기독교총회와 MOU체결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홍지아 성도(치앙마이래빗)
〈치앙마이, 그녀를 안아줘〉 저자

우리는 토요일에 결혼해서 월요일에 방콕으로 날아온 25살 동갑내기 부부다. 남편은 오자마자 방콕의 국제대학인 에이백대학으로 편입했지만, 난 졸지에 직장, 가족, 친구, 언어를 잃어버렸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절로 나는 처지가 됐다.

첫 달 내내 정신 나간 여자처럼 굴자 남편이 당장 태국어 학원을 알아봐주었다. 혹독하게 가르치기로 유명한 ULS(Union Language School)란 어학원이었다. 아침 7시50분까지 교실에 들어가야 하고 지각하면 아짠야이(원장)의 잔소리를 견뎌야한다. 하루 4시간, 주5일, 6개월 동안 태국어를 마스터하라는 미션이 떨어졌다. 발이 지구에서 떨어진 듯한 기분이었으므로 나는 필사적으로 언어에 매달렸다.

여섯 단계로 진행되는 태국어교육과정은 꽤 체계적이었다. 첫 두 달은 글자를 배우지 않고, 음성기호를 보고 읽고 듣는 데만 집중한다.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한 문장 정도를 마스터 하는데, 정말 두 달이면 가벼운

회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된다. 태국어는 중국어처럼 성조가 있다. 다섯 개의 성조를 잘 인식해야하는데, 음치인 경우 정말 힘들다. 문장 구조는 영어, 중국어와 비슷한데, 가장 좋은 건 동사변화가 없다는 거다. 동사의 과거형, 미래형 따위는 없다. 부사로 충분하다. 게다가 단어가 무척 쉽고 간단하다.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쉬운 언어라고 희희낙락하는데 3단계에서 빨간 불이 켜졌다. 이런! 도대체 왜 자음이 44개, 모음이 32개나 되단 말인가! 게다가 성조는 왜 이리 복잡하게 달라진단 말인가! 웬 묵음과 생략은 이리도 많은 말인가! 가능하기만 하다면 태국어를 만들었다는 람캄행 왕에게 세종대왕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다.

하나 이미 시작했으니 어찌겠는가. 울면서 열심히 외우고, 받아쓰기 시험도 치고, 제발이 고비만 넘기기 바랐다. 5단계에 들어서고 나서야 간판과 과자봉지를 읽게 되고, 6단계에 들어서면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만세! 드디어 문맹에서 벗어난 것이다.

내가 어느 정도 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우리 부부를 잘 아시던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다. 학원 옆 방콕크리스천병원에서 한국인 통역사를 구하고 있으니 한번 인터뷰를 받아보라는 것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 원장님을 만났다. 결과는 놀랍게도 합격이었다.

기쁨도 잠시. 걱정이 됐다. 겨우 6개월 태국어 공부한 걸 가지고 중요한 병명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혹시나 통역을 잘못해서 환자에게 폐만 끼치는 거 아닐까?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자 남편은 다시 해결책을 내놓았다. 병원 언어만 따로 공부할 과외선생님을 구하자는 거였다. 이웃에 사는 선교사님에게 부탁하니, 태국 사람 한 명을 소개해 주었다. ‘잉’이

“오! 나의 태국어”



라는 자매였다. 그녀는 교회 청년부 리더로 신실하고 활발한 아가씨였다. 게다가 가르치는 일에 재능이 있는지, 설명이 알아듣기 쉬웠다. 우린 금방 친구가 됐다. 잉의 도움으로 병원 통역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태국에서도 신실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태국인의 대부분은 불교신자로 국왕은 살아있는 부처로 여긴다. 몇 십년 전만해도 사찰은 학교이자 병원이었고 마을회관이었다. 현대 태국의 불교는 불교 본연과도 좀 거리가 있다. 대중의 신앙은 토속신앙과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태국인은 만물에 귀신이 있다 믿으며, 귀신을 가장 두려워한다. 부처는 그 귀신을 내쫓는 영험한 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꽤 많아 보인다. 또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배금주의와 개인주의가 태국인의 삶을 더없이 외롭고 고통스럽게 한다.

잉은 그런 문화 속에서도 든든히 뿌리를 내린 크리스천이었다. 몇 개월 후 그녀가 자신처럼 밝고 신실한 형제를 만나 결혼했을 때, 우리 모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 후에도 둘 사이에서 아들 셋이 줄줄이 태어나고 사역이 풍성하게 자라가는 것을 즐겁게 지켜보았다.

다시 몇 년 후, 놀랍게도 잉 부부가 선교사로 한국에 왔다. 그녀와 남편인 마눔 목사님은 지금 안산에서 태국인노동자들을 위한 교회를 꾸리며, 온누리교회와 협력하고 있다. 잉 또한 한국어가 어렵다며 아주 열심히 공부 중이다. 한국어는 자음 모음 수야 적지만, 동사변화가 아주 끝내준다.



목회칼럼 전문홍 목사(중국어예배)

중국인 유학생들을 잡아라!



7만 5천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매년 추석과 설날에 허기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정처 없이 배회한다. 명절날 중국인 유학생들의 유

일한 피난처는 교회다. 2년 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온누리교회를 찾은 한 중국인 청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들은 귀한 청년이다.

온누리교회 중국어예배부는 170여 명의 중국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다. 그들에게 교회는 고향과 같은 존재다. 매년 늘어가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들 안에 심어줘야 할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는 이유는 중국의 대학입시 체계 때문이다. 중국의 대학입시 열기도 한국 못지 않다.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해외유학이 유행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유학을 오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5~6년 전만 해도 석·박사 학위를 수여받으려고 유학을 왔지만 지금은 어릴 때 해외로 유학을 다녀와야 좋다는 생각이 만연하다. 그래서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지역적 관점에서 선교를 이야기할 때 ‘10~40창(Ten Forty Window)’이라는 용어를 썼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북위 10~40도에 거주하는데, 이 지역은 러시아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을 의미한다. 집중선교 대상지역을 말한다.

최근 이 용어가 ‘4~14창(Four Fourteen Window)’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4세~14세까지의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다. 선교가 지역적인 관점에서 연령적인 관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4~14세 사이는 예수를 믿는 황금기다. 중국의 사회주의에서는 그 황금기에 복음을 듣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시기는 대학생 시기다. 매년 50만 명의 중국인들이 해외로 유학을 떠난다. 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한국에 유학 온 중국인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이유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복음의 통로다. 부모를

떠나 방황하고, 외로운 시기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만큼 좋은 열쇠가 없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면 70%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된다. 놀라운 복음의 효과다.

중국 교회와 중국 사회의 변화에 바라보면 선교해야 한다. 온전한 교회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잘 양육시키면 중국 교회와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 중국 사회와 직장, 가정을 변화시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미래는 20~30년 후이다. 그들의 잠재력이라면 중국 복음화는 더 빨리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응원과 기도다. 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금년에도 두세 가정의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산이다. 그들이 잠재력을 발휘하는 그 날을 기대하고, 기도한다.

삼성서울병원 선교 봉사자 교육

16개 교회, 성도 80여 명 참석

지난달 21일 남한산성 목사의 집에서 삼성서울병원 선교 봉사자 교육이 실시됐다. 메르스 사태로 중단되었던 삼성



사진은 지난해 호스피스 세례식.

서울병원 선교를 10월 초부터 다시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된 교육이었다.

이날 봉사자 교육에는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16개 교회 8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다. 봉사자 교육은 김민자 사모의 웃음치료, 강동 온누리교회 강경옥 집사의 간증, 김정숙 목사의 강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가족 중에 호스피스 대상자가 있거나 온누리 호스피스 돌봄을 받기 원하는 성도는 문의번호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호스피스: 010-5514-1985,

삼성서울병원: 010-8367-8835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봉사자 간증

고난도 축복이다



/ 강경옥 집사

대장암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6년 동안 한 공동체에서 친하게 지냈던 장은숙 권사님이 내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다. 대장암이었다.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건강을 자신하던 나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장 권사님 덕분에 대장암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 축복이다.

민경애 안수집사와의 만남도 빼놓을 수 없다. 나는 그분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다. 대장암 결과를 듣고 가장 먼저 생각 난 사람이 김정숙 목사님이었다. 목사님은 내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알려달라고 하셨다.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곧 바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재검사를 받고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병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지난해 말 검사 받고, 올 초에 입원하고 수술 받는 기간 동안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주신 말씀카드를 붙잡고 있었다. 어찌나 달고 맛있었는지 모른다.

나는 참으로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았고, 그 생명의 빛이 나와 가족을 살렸다. 성경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일본어예배 창립 25주년 행사

10일 일본선교포럼, 11일 감사예배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부가 10월 7일 25주년을 맞이한다. 일본어예배부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10일 일본선교포럼을 개최하고 11일에는 25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10월 10일 열리는 일본선교포럼

은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일본어예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다보고, 일본선교 전략, 러브소나타 중장기 전략, 일본 비전교회 중장기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0월 11일 오후 2시 20분 서빙고 한동홀

에서는 일본어예배부 25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일본어예배부의 향후 25년 비전을 선포하고, 간증을 나눌 예정이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는 “새로운 일본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뜻 깊은 행사와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5년 차이스타 컨퍼런스

수요어머니기도회 ‘사랑, 행복한 소통’

10월 7일 시작 ... 서빙고 누리홀, 양재 화평홀

차세대 수요어머니기도회가 사랑: ‘행복한 소통’을 주제로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된다. 오전 9시15분부터 10시30분까지 서빙고는 누리홀, 양재는 화평홀에서 열린다. 강사는 서빙고 박종길 목사, 노희태 목사, 안광국 목사, 이

서진 목사, 양재는 이상준 목사, 안광국 목사, 노희태 목사, 최성민 목사가 차례대로 강의한다.

차세대 본부장 노희태 목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기도로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어머니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선교부 ‘청년 부채문제 해결 캠페인’

10월 20일까지 신청

사회선교부가 ‘청년 부채문제 해결 캠페인’을 벌인다. 학자금 대출, 비자발적 실업, 생계비 조달 등으로 심각한 부채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을 도와주는 캠페인이다. 외부 재정상담 전문기관과 협력해 기초상담 및 응급처치, 1:1 정밀진단, 맞춤형 솔루션 제시, 실행지원 및 사후 관리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재무설계, 심리상담도 실시한다. 부채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청년이나, 그런 청년을 알고 있는 주변인의 추천이 있으면 된다.

연령은 만 45세 이하여야 한다. 10월 20일까지 사회선교부 웹사이트(<http://sjm.onnuri.org/loving-u-debt>)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215-343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중국어예배부, ‘차이스타 컨퍼런스’ 참석

온누리교회 중국어예배부 소속 성도 110명이 지난 26-29일 재한중국인 유학생 전도집회 ‘2015 차이스타(Chinese Students All nations)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한국 KOSTA(국제복음주의학생연합회)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전도집회다.

중국어예배부 소속 계열 자매는 “온누리교회 한국어교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지난 2년 동안 차이스타 컨퍼런스 스태프로 섬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KOSTA는 CHISTA 집회 외에도 MOSTA(몽골), JAISTA(일본) 집회도 열고 있다.

/ 김미림 기자



오이타 기·도·제·목

- 10월 5일(월)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 전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 10월 6일(화) 일본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과 일치로 이루도록
- 10월 7일(수) 오이타 교회들이 강하고 담대해 지도록
- 10월 8일(목) 러브소나타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 10월 9일(금) 실행위원 목사들에게 십자가 은혜와 능력이 부여되도록
- 10월 10일(토) 이재훈 목사님의 영육간 강권함과 성령충만하기를
- 10월 11일(주일)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넘치도록

2015년 울러라 한반도여! 요일별 중보기도제목

- 10월 5일(월) 리더십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연합과 일치로 이루도록
- 10월 6일(화) 온누리교회가 나아진 마음으로 한국과 열방을 넉넉히 섬기도록
- 10월 7일(수)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선포되도록
- 10월 8일(목) 중보기도 할 때 견고한 진들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 10월 9일(금) 이재훈 목사님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잊었던 여성선교사 이야기 방송

CGNTV, 10월 25일 방송 예정

지난달 30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CGNTV 개국 10주년 특집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CGNTV는 “내한 선교 130주년과 CGNTV 개국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CGNTV가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

은 잊었던 여성 선교사들의 이야기다. 한국에 온 선교사 중에서 73%가 여성인데 남성 선교사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돼 놓였거나 잊었던 여성 선교사들의 삶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다. CGNTV는 이 프로그램을 10월 25일 방송할 예정이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기고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일본어예배 담당목사)

일본의 추석 ‘오봉(お盆)’

일본에도 추석이 있다. ‘오봉(お盆)’이다. 음력 7월 15일에 조상을 모시는 일본인들의 명절이다. 일본 사람들은 오봉에 선조들의 영이 저 세상에서 현세에 돌아와 잠시 머물다 다시 저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여긴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8월 13일~16일까지 4일 동안 의식을 행한다.

오봉의 정식명칭은 우라봉에(盂蘭盆会, うらぼんえ)다. 우란분경(불경의 하나)에 나오는 효도에 관한 일화가 오봉의 유래다. 석가모니의 제자 중에 신통력이 가장 세다고 알려진 목련존자(目連尊者)가 어느 날 죽은 어머니가 아귀도에 떨어져 거꾸로 매달려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지를 스승인 석가모니에게 물었다. 석가모니는 “네가 많은 사람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네 어머니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련존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대로 여름 수행기간인 7월 15일에 많은 승려들에게 먹을 것을 바쳐 공양했다. 그 공덕으로 그의 어머니가 극락왕생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다. 그 이후 음력 7월 15일은 부모나 조상의 보은에 감사하고, 공양을 드리는 중요한 날이 되었다. 각지에서 열리는 오봉 행사는 각지의 풍습이 더해져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상의 영혼이 돌아온다는 사상이 기저에 깔려있다.

오봉이 시작되는 13일에는 무카에봉(迎え盆)이라고 해서 조상의 영혼을 맞이하는 의식을 한다. 이때 조상들이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무카에비(迎え火)라는 마중하는 불을 피우고, 집에 제단인 ‘본다나

(盆棚)’를 마련한다. 이 제단에 음식과 함께 가지로 만든 소나 오이로 만든 말이가 있다. 조상의 영이 소에 짐을 싣고, 말을 타고 온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조상이 온다는 13일 밤에는 보리사(조상의 위패를 모신 절)에 참배하러 가거나 성묘를 간다. 한국인들이 고향을 방문해 성묘를 하는 것처럼 말이다. 16일은 오후리봉(送り盆)이라고 해서 조상의 영혼이 돌아가는 날이다. 오후리비(送り火)라는 배웅하는 불을 피운다. 고인이 죽은 지 49일 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오봉)을 ‘니봉’이라고 한다. 아라본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때는 보통의 추석보다 더 정성들여 준비하고 공양한다. 이처럼 일본의 추석은 조상의 영과 함께 보내는 기간이다. 최근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없어져가고 있다. 추석축제 오봉마츠리(お盆祭り)를 함으로써 지역 문화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때 봉오도리(盆踊り)라는 춤을 춘다. 이 또한 정령을 위로하고 다시 보내기 위해 행해지는 풍습이다.

일본에서는 오봉과 연결된 칠석축제가 있다. 조상에게 빈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단자쿠(短冊)라는 대나무 조릿대에 소원을 쓴 종이를 매다는 풍습이 있다. 일본의 어느 교회에서는 칠석날 이 대나무 조릿대에 예수님께 빈 기도제목을 매달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조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일본인에게는 영혼을 구하고, 영혼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 이것이 참 영이며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란다. 주님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



권사칼럼 이일순 권사(강남A공동체)

“살루 살루 예루살라임”

우리 집안은 불교와 유교에 뿌리 깊은 가정이었다. 양반 댁에 예수를 모르던 집안이 었다. 나는 20대부터 도자기 화랑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바쁜 삶을 살아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보며 크리스천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1986~1988년 아시안 게임이 있을 때 나는 바쁜 시절을 보냈다. 알 수 없는 두통에 시달렸고, 지방으로 잦은 출장을 다니면서 과속 운전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당시 나는 공허함과 우울증에 빠져있었다. 나를 지켜보던 한 친구는 내게 점집에 가볼 것을 권했다.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찾은 점집에서 내게 아주 이상한 소리를 했다.

“만 명 중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사주를 타고 태어났다.”

그 날 하늘을 보며 다짐했다.

“인생의 사주가 그리 안 좋다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을 만나보자.”

그날 저녁 밤새 악몽에 시달렸다. 당시 여동생은 교회를 다녔다.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던 나는 동생에게 성경책을 빌려 베고 있는데 두통이 점차 사라졌다.

여동생은 나를 사당동의 작은 교회로 인도했다. 소아마비 환자였던 목사님과 마주한 나는 말없이 세 시간을 앉아 있었다. 목사님은 내게 “4만 명 중 1명인 사주로 태어나 척추가 좋지 못하다”는 점쟁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다. 목사님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 내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것이다. 고집이 센 나는 목사님께 교회에 다니기는 싫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내게 찾아와 설교 테

이프를 주었다.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였다. 설교를 들으며 자연스레 삶이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나와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다. 삶이 회복되며 내 발로 찾은 곳이 바로 온누리교회다.

1994년 본당 계단을 오르는 순간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다. 새벽예배가 끝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히브리어 찬송이 들려왔다. “살루 살루 예루살라임”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모임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 때부터 이스라엘 선교에 관심을 가졌다.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그 기도모임이 지금의 KIBI(한국이스라엘 성경 연구소)다.

지금까지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며 한복과 전통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2005년에는 ‘Peace March’를 주제로 이스라엘에서 한복 패션쇼를 개최했다. 2,500여 명이 참석한 패션쇼였다. 내게 패션쇼는 전도의 현장이었다. 패션쇼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영감을 주시며 색다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나는 지난 20여 년 동안 송구영신예배 때마다 하용조 목사님의 한복을 입혀 드렸다. “우리는 이스라엘, 로마, 파리 등 초대교회를 따라 온 열방으로 전통문화를 들고 나가야”라고 말씀하시던 음성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2017년은 이스라엘의 희년의 해다. 온누리교회가 다시 한 번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대회를 개최하기를 기도한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으면 좋겠다. 온누리교회가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한다.



신앙에세이 유현목 목사(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진정한 자유와 해방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시몬 드 보부아르는 1949년 〈제2의 성〉을 발표하면서 현대 페미니즘의 창시자로 해성같이 나타났다. 그녀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어머니, 아내, 딸로서 살지 말고 여성으로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롭게 사랑하고, 치열하게 성공하라는 그녀의 외침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그녀의 극단적인 여성주의는 전통적인 결혼 질서를 부정하고, 가사와 임신, 출산조차도 불필요한 것으로 거부하는 등 투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그녀의 가르침과 다른 이중적이고 모순된 사생활이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 사르트르와 계약결혼을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마치 페미니즘의 불을 훔쳐 여성에게 해방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와 같았던 그녀는 정작 사르트르의 바람기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야 했고, 이성이 아니라 동성의 동반자로 취급되었다. 결국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 시몬도 맞바람을 피웠고, 심지어 어린 제자에게 접근해 동성애 관계로까지 발전하였다. 그 제자는 나중에 사르트르의 연인이 되어 시몬의 질투를 자극했다.

시몬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정적인 배경이 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특권적 대우를 받으면서 자아가 심각하게 팽창되었다. 부모님의 불화, 아버지의 외도와 난폭한 성품, 어머니의 애정결핍과 우울증 등은 그녀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강화시켰다. 이런 가운데 자신보다 열등한 동생 위에서 독재자로 군림하곤 했다. 그런 과정에서 그녀는 가슴은 여성이지만 머리는 남성으로 자라게 되었다. 결국 부모의 불화로 형성된 부정적 결혼관과 건강한 남성상에 대한 경험 부재는 그녀로 하여금 정상적인 결혼에 직면할 용기를 갖지 못하게 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결혼이라는 관습과 제약을 거부하고 여성의 수태 능력까지도 비생산적인 것으로 폄하하고, 어머니 뱃속을 거부함으로써 여성성의 진정한 가치를 왜곡시켰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우도 성(Gender)은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다. 성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 가운데 온전한 하나 됨을 위하여 주신 선

물이다. 결혼은 하나님의 질서이며, 임신과 출산을 통해 어머니 뱃속을 누리는 것은 축복이다. 따라서 여성의 진정한 해방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참된 결혼의 행복 역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서로에게 무한한 자유를 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향한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에덴의 행복을 이 땅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뉴질랜드에는 수많은 젊은 시몬들이 전통적인 결혼관계 대신 계약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와 해방을 꿈꾸며 살고 있다.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준 나라다. 이곳에서 여성들은 어디서나 당당하고 친절하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공립학교에서는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가르친다. 그들은 여성의 인권과 실존적 가치를 회복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깨어진 가정과 문화화 되어가는 기독교 안에서 그들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굴레를 벗어버림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함으로써 누릴 수 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바람처럼 불처럼

정결케 됩니다.

왜 불이 혀로 나타났을까요. 불같은 뜨거움이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조용하고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체험하는 사건으로 임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에 내려온 능력 이요, 체험입니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나의 결심이나 결단 이전에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사건은 교회가 시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던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지금 수준에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더욱 큰 믿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사건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 경험한 체험입니다. 2차적 체험입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현상으로 볼 때는 단회적입니다. 이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언제나 바람소리처럼, 불이 보이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4장에서는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땅이 진동하는 사건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큰 기쁨으로 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서는 순교의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기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모두 성령님의 능력을 입는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을 입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절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바람과 불이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둘 다 능력의 상징입니다. 바람도 변화를 일으키고, 불도 태우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람과 불이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불과 바람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이 이와 비슷합니다. 영적 대화재입니다. 보스턴에 노스햄튼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진노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원고를 손에 들고 읽었습니다. 화려하고 강력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원고를 읽는데 사람들에게 불이 임했습니다. 보이는 현상은 아니었지만 불이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미국 동부에 대화재를 일으켰습니다. 동에서는 불이 임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는 바람이 임했습니다. 그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18세기 미국의 제1차 대각성은 동이 벌어졌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불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서 평양 전체에 영적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1주일 동안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1740년도에 뉴브른스윅에서 일어난 자신

의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집회에서 빌보트테네시가 설교하였고 내가 그 다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약 6분 가량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말하신다고 소리쳤다. 그는 자기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확증을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기뻐서 어찌나 소리를 지르던지 내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자신의 영혼이 어찌나 충만했던지 나는 자신의 비열함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주권과 위대함을 의식하며 주님 앞드려 울어버렸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그 밤을 보냈다. 그 밤은 결코 잊지 못할 엄청난 밤이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을 어찌 충만케 했는지 나는 그 앞에 서있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체험을 사모하고 기다려합니다. 이런 체험 가운데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영적 언어는 다른 지역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수많은 지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방언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복음의 위대한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를 자신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왜 성령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언어를 배워서 복음을 설명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급속하게 복음이 증거하려고 방언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성령님의 덧입음을 체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람처럼, 불처럼, 때로는 진동으로, 기쁨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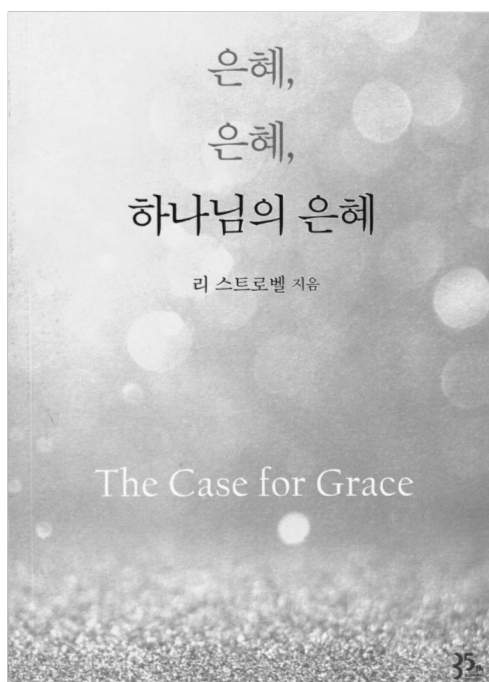
은혜의 증거들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리 스트로벨 저 | 두란노 | 14,000원

“우리가 다 그의 총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요 1:16).

은혜라는 말처럼 우리를 설레게 하고,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단어가 있을까. 이 책의 저자 리 스트로벨은 이 시대에 실재하는 은혜의 현장을 인터뷰하면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과 부정할 수 없는 은혜의 증거들을 만났다. 혼혈인 고아, 마약 중독자, 노숙인, 사역자인 아버지에게 반항하며 방황하던 탕자가 변화되고, 엘리트 무신론자에서 회심해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된 각양각색의 인생이야기 속에 은혜의 의미가 담겼다.

저자 또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와 신앙 여정을 솔직하게 공개했다. 각자의 절박한 사연에서 나오는 메시지만다 은혜와 감동이 전해진다. 저널리스트 출신의 리 스트로벨 목사의 탁월한 분석과 인터뷰를 읽고 있으면 우리가 실제 그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

〈성장〉
최은영 저 | 두란노 | 12,000원

아이를 키우는 일을 다사다난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실감이 난다. 최선을 다해 양육하지만 막상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당황하게 된다. 부모들은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한 원인을 자녀에게서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자녀 문제의 대부분은 부모의 문제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깨달을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

저자도 최고가 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 큰아들이 방황을 하고 있었다. 그때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상태와 마주하게 되었다. 이 책은 다른 책들과 다르다. 저자가 자녀문제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해법이 실제적이다. 크리스천으로서 자녀의 분노, 불안, 우울, 중독, 학습 문제를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야.

